

01 교회소식

불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며 믿음을 키워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농아 성도들이 손수건 집회를 통해 큰 축복을 받았다.

02 생명의 말씀

범죄치 마옵소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범죄하지 않도록 권면해 주며 끝까지 진리로 이끌어 주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선이다.

03 기획특집

좋은 관계 만드는 대화의 법칙

부정어가 아닌 긍정어로, 명령어가 아닌 의뢰어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쿠션언어를 사용할 때 상대방은 물론 자신도 행복해진다.

04 간증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이재록 목사의 책 한 권을 통해 사역의 전환점을 맞게 된 미얀마의 파 흐랑 흐랑 목사와 질병으로 믿음이 성숙한 김태영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32호 2012년 5월 1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Lyrics

내 마음의 소망

천국의 보석처럼 아름다운 내 마음
예쁘게 만들어 올려 드리고 싶어

반짝 반짝 반짝 반짝

천국의 보석처럼 아름다운 내 마음
아름답게 아버지께 올려 드리고 싶어

내 마음 전해 드려요
내 마음 가득히 있는
주 향한 그리움 천국 향한 소망

내 마음 전해 드려요
내 마음에 소망 전해요
아버지 주신 천국 소망 전해요

Copyright©2009.2.15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2012. 5.4.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번지) (NikonD7000, 18-135mm, 1/1250, f/9, ISO 180, 20120504_125305)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조수열 목사, 태국과 말레이시아 농아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인도

우리 교회 농아인선교회 지도 교사 조수열 목사가 태국 핫아이 농아만민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에서 설교하고, 농아 성도들이 세운 태국과 말레이시아 5개 지교회를 순회하며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다.

지난 5월 1일, 첫 집회가 열린 태국 푸켓 농아만민교회에서 조수열 목사는 ‘하나님만이 살아 계신 참 신이시다’(롬 1:20)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뒤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었다.

니코(여)는 다리 통증으로 보행이 어려웠는데 잘 걷게 됐고, 남클타이(여)는 냄새를 잘 맡지 못

하던 것을 치료받았다. 또 사이브틴(여) 외 여러 명이 시력이 호전됐으며, 카다마 위침봇(여)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는 등 각종 통증과 약한 곳이 치유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2일, 수랏타니 농아만민교회 손수건 집회에서는 ‘권능’ DVD 상영 후, 조 목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자’(마 7:15~17)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다.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던 만타니(여)가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 성령의 불을 받아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

다”고 간증해 장내는 축제 분위기가 됐다. 이 외에도 찰로 엠폴(남)은 오른쪽 눈에 빛이 들어옴을 느낀 뒤 좁게 보였던 시야가 넓어졌고, 지리스니(여)는 호흡 곤란과 갑상선 질환을 치료받았다.

6일에는 핫아이 농아만민교회 창립 2주년 기념예배와 손수건 집회가 있었다. 공연 의상도 직접 만들어 정성껏 준비한 성도들의 특송은 창립의 기쁨을 한층 더해 주었다. 이후 조 목사가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유’(행 4:12)에 대해 설교한 후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다.

찬수리 포르누나(여)는 “기도를 받은 뒤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린다”고 간증했으며, 비야낙 콩나이(여)는 “성령의 불을 받은 뒤 시력

이 호전됐다”, 수콘 순수완(여)은 “유방에 있던 딱딱한 몽우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등 많은 간증이 이어졌다.

7일, 트랑 농아만민교회에서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살아 역사하신다’(히 13:8)라는 제목의 설교 후 손수건 기도를 해주었는데 머리, 눈, 어깨, 팔다리, 전립선, 혈액 순환장애로 인한 전신 통증, 호흡 곤란 등이 치료됐다.

8일에는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동해 9일부터 11일까지 손수건 집회 인도와 성도 심방으로 모든 선교 일정을 마쳤다. 강사 조수열 목사는 “열악한 현지 농아교회 상황과는 달리 우리 농아만민교회 성도들은 당회장님의 후원으로 시설을 잘 갖춘 곳에서 평안히 예

배드리고 있었으며, 목자의 권능을 사모함으로 준비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농아만민 지교회들은 우리 교회 농아인선교회 부지도교사인 지정훈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지 목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말레이시아 페낭 농아만민교회가 개척했다.

현재 태국 핫아이, 트랑, 수랏타니, 푸켓과 말레이시아 페낭, 말라카에 농아만민교회가 세워졌으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틀, 이포, 타이핑 지역과 대만, 베트남 등 주변 나라에서도 농아 지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강사 조수열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해주자 듣지 못하던 귀가 들리고, 시력이 호전되며, 갖가지 질병이 치유되는 등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범죄치 마음소서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음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사무엘상 19:4)

로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요나단은 다윗을 본 순간 하나님 사람임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이 사랑했습니다.

사울 왕은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출전한 전쟁마다 큰 승리를 거둬서 영웅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혀 갔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격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바라볼 것은 나의 옥좌가 아니겠는가?’ 하며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단장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요. 이러한 사울의 무서운 적개심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한 사람은 바로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 왕에게 제발 다윗에게 자비롭게 대해 주기를 탄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사무엘상 19:4~5에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음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며 간청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권력은 부자간이나 형제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만 없으면 다음 왕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차지가 됩니다. 반면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육적인 정에 치우치거나 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었고, 아버지 사울 왕이 범죄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단호히 죄를 짓지 말라고 영적인 사랑으로 간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끝까지 선으로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다한 요나단

사울 왕은 다윗의 명성이 더욱 높아져 자 공식석상에서 다윗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단은 일단 다윗을 피신시키고 사울 왕 앞에 나아가 다윗을 구명하기 위해 탄원합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월삭 축제 둘째 날이 됐는데도 다윗이 식사 자리에 안 보이자 사울 왕이 궁금해 묻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사울 왕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서 형들과 함께 제사 드리기를 원해서 가도록 허락하였나이대’라고 대답했지요.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 왕은 노를 발하며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삼상 20:30~31)

요나단은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며 다윗의 무죄함을 변호했지요.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얼마나 화가 치밀었던지 단창으로 아들마저 치려 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다윗을 향한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는 너무 슬퍼 울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끝까지 지키며 사울 왕이 돌이키도록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요나단의 선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단지 아버지의 범죄를 막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다하며 더 깊은 차원의 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누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몹시 마음 아파합니다. 더구나 악한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더욱 큰 고통을 받지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악인과 함께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까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블레셋과

의 전투에서 함께 전사할 때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 진정한 선은 범죄를 막고 진리로 이끄는 것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나아가 이웃까지 피해를 입는 것을 봅니다. 또한 몇몇 사람의 범죄로 백성 전체가 고통받기도 하고, 그룹의 리더가 범죄하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지요.

죄는 이처럼 개인은 물론 주변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마음 상하게 하거나 화평을 깰까 염려돼 말을 못합니다. 이는 사랑도, 선도 아닙니다. 육적인 정에 불과하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는데도 타이르기만 할 뿐 체벌도 가하지 않았지요. 끝내 아들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두 아들은 물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가문에 재앙이 임하고 맙니다. 진정한 선은 범죄를 막고 권면해 주며 진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은 가족 중에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말을 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온전한 선은 어떠한 것인지 잘 알기에 사랑으로 진리의 말만 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한 선 속에서 가족을 사랑했기에 범사에 하나님 말씀만 행하도록 이끌며 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죄라도 짓지 않도록 막아주었지요. 이에 가족 전체가 더욱 진리로 변화돼 큰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영적인 사랑으로 충만했기에 자신의 아버지가 범죄했음지라도 끝까지 선으로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요나단과 같이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어 주되 단호히 죄를 지적해 진리로 이끌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부도 위기에 있던 아버지 회사가 크게 회생했다면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친구에게 심한 해를 끼친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해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끝까지 선으로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며 간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영적인 사랑으로 아버지의 범죄를 막은 요나단

사울 왕의 장남인 요나단은 왕위를 이을 왕자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용사요 넉넉한 인품을 가진 리더로서 백성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았지요.

어느 날, 요나단 앞에 다윗이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그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고 어려운 전투를 승리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 / 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36, 5615(번도), 5616(번도(번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자녀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찬양예배 [대학·가난·청년·비율·미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일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나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다.
한 양반이 백정에게 말했다.
"이놈아! 고기 한 근 다투."
또 다른 양반도 말했다.
"이보시게, 이 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나."
백정은 고기를 각각 찢어 주었고, 같은 한 근인데도
그 양의 차이는 컸다.
먼저 고기를 달라고 한 양반이 백정에게
따져 물었다.
"같은 한 근인데, 왜 이 사람 것은 이렇게 많고,
내 것은 이렇게 적으냐?"
그러자 백정이 대답했다.
"네, 그거야 어르신 고기는 '놈' 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르신 고기는 '이 서방' 이 자른 것이니까요."

풍성한 삶을 위한 세 가지 대화의 원칙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평상시 상대를 배려하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 입장에 맞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언행이 본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세 가지 대화의 원칙을 소개한다.

하나 부정어가 아닌 긍정어로 하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다. '안돼요, 몰라요, 못해요'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

그런가 하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듯 자기 방식대로 거절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 하되 거절해야 할 경우에는 우아하고 매너 있게 하자는 말이다. 거절하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정말 안 되는 것인가? 정말 못하는 일인가?' 자신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자.

자신이 조금만 더 애쓰고 수고하면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답하는 습관을 기르자.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알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노력한다면 상대를 배려하는 삶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 yes, but 화법을 활용하자

일단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요구를 하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yes).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but).

이렇게 yes, but 화법을 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부득이 거절해야 할 경우라면 그 이유를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때 반드시 주의할 것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상대에게 잘 전달됐는지 살펴야 한다.

"지금 급하게 물 한 잔이 필요해요."

〈부정어〉
"없어요."

〈긍정어〉
yes, but 화법

"아 그러세요?
이곳에는 물이 없지만
옆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명령어〉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의뢰어〉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셋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쿠션언어를 사용하자

둘 명령어가 아닌 의뢰어로 하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처럼 누군가에게 지시와 명령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것 또한 습관이다.

사람의 마음은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된다. 아무리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겉으로 표현한 말과 행동이 상대를 무시하고 명령하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면 기분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작은 습관 하나라도 개선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 의뢰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자

부드러운 톤으로 말 끝부분에 "...하시겠습니까?"를 붙이면 된다. 냉랭한 마음으로 말의 표현만 영무새처럼 의뢰어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져야 한다.

쿠션은 외부 충격을 흡수해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쿠션언어는 대화할 때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말랑말랑한 언어이다.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바쁘시겠지만, 관찮으시다면, 번거롭겠지만' 평상시 이런 쿠션언어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기르자.

그러면 상대를 향한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쿠션언어〉

"바쁘시겠지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처럼 곱고 아름다운 말은 상대를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행복해진다. 더욱이 마음 중심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실한 행함이라면 그 사람의 모든 일상은 사랑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가정의 달 5월 | "은 세상에 외치는 방송, GCN! 생명의 말씀과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GCN에서 만나보세요!"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1~4
- 천국 5~9
- 선 11~15



이수진 목사의 TV설교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1, 2'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A/S 문의

1577-2073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과 권능,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파 흐랑 흐명 목사 (미안마 MCL출판사 대표)

만민중앙교회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한 흐명 목사

저는 미안마의 만달레이(미안마 제2의 도시)에 소재한 라이침레교회 목사입니다. 현재 기독교서를 미안마어로 번역, 출판하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2006년은 제게 참으로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돌아온 신학생이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주님께서 제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다.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기에 미안마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기를 원했지요.

저자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분의 저서를 미안마어로 번역, 출판해야겠다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출판사인 서울 우림북 주소를 찾아 연락했습니다.

제 궁금증을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 출판사 직원에게 향후 이재록 목사님 저서를 미안마어로 번역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지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2007년 3월 12일, 하나님 은혜와 이재록 목사님의 배려로 번역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만민중앙교회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증수기 저자인 이 목사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사모했지요.

2008년 10월에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님 마음을 닮고자 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만민중앙교회에 나타나는 기적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목사님의 사역 등 그때 본 것들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바뀐 기적의 현장 무안 단물터, 각종 행사 때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무지개는 놀라움 그 자체였지요. 주일 예배는 물론, 금요철야예배, 다니엘철야 기도회 등을 통해 체험하고 느낀 깨우침은 지금까지 저의 영적 성장과 사역에 큰 힘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을 하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에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저는 행복과 기쁨으로 찬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은혜로 이 목사님 저서 번역 업무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를 비롯해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 대표저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을 미안마어로 번역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인지요.

주님 은혜로 달라진 나의 삶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2010년 11월, 태국과 미안마에서 열린 집회 시 나타난 기적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나타난 기적처럼 이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강사님이 기도해 줄 때 수많은 성도가 치료받은 사실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 DVD를 통해서 본 이 목사님의 해외 연합대성회 인도 시 나타난 기적들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약 이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오늘날 이 목사님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에 비하면 저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로 이 목사님과 만민중앙교회를 만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으며 주님 마음을 닮고자 성결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지요.

주님께서서는 이 목사님의 저서들을 통해 제게 여러 모로 말씀해 주시고 사역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으로 이 목사님의 저서들은 살아 있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분의 삶과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남다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더욱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흠 없는 자녀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핵성 늑막염’이라는 병원 진단을 받고 너무나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었지요.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답이 없는 자녀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을 찾아 열심히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아내, 자녀, 부모, 신앙인으로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귀히 여기며 온 집에 충성하지 못한 것, 바쁘다고 기도를 쉬었던 것, 이런 저런 이유로 헐기나 짜증을 냈던 것 등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섰지요.

저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주님 사랑과 목자의 권능을 신뢰했기에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찾아가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렸지요. 당회장님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예를 들어주시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천

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끄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요. 기도받은 즉시, 그토록 심했던 기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기력이 없어서 빨리 걷기도 힘들고 눈이 침침했던 증상들도 사라졌지요. 약간의 옆구리 결림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가끔 피곤한 증상이 찾아올 때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미 치료해 주셨다고 믿고 성도들을 위해 희생

흉부 사진



다량의 흉강 삼출물 보임 흉강 삼출물 보이지 않고 깨끗함

하시는 목자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오하려 섬기고 봉사했지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믿고 행했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며 사명에도 최선을 다했더니 신속하게 치료됐지요. 병원 검진 결과, 완치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주님께 돌리며, 사랑과 권능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김태영 집사 (1대대 2교구, 2-여성교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확산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8번지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7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사정길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8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창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리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1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2층) ☎033)261-4217, 010-7300-42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원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경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